

-기 때문에

~ 때문에 — 이유, 원인

글에서 이유를 나타내는 방법입니다. -아서/어서보다 무게감이 있으며, 마찬가지로 뒤에 명령이 올 수 없습니다.

■ 결합 방법

상황	형태	예
모든 동사·형용사	-기 때문에	오다 → 오기 때문에
과거	-았/었기 때문에	왔기 때문에
이다	-이기 때문에	학생이기 때문에
명사와 함께	명사 + 때문에	비 때문에
문장 맨 앞	그렇기 때문에	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
뒤에 명령 불가	-(으)니까를 씀	비가 오니까 우산을 가져가세요

■ 언제 쓰나요

-기 때문에는 모든 어간에 붙습니다. 모음 규칙이 없고 ㄹ도 그대로 남습니다. -기 단독으로 쓸 때와 달리 이 구문은 시제를 붙일 수 있습니다: 비가 왔기 때문에 못 갔어요.

-아서보다 원인을 더 무게 있게 나타내며 보고서, 논문, 격식 있는 설명에 어울립니다. 편한 대화에서 쓰면 변명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.

명사에는 -기를 빼고 붙입니다: 비 때문에 늦었어요.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. 명사 + 때문에는 보통 무언가를 탓하는 뜻이 되어, 사람 때문에는 부정적인 의미로 ‘그 사람 탓에’라는 뜻이 됩니다. ‘학생이라서’처럼 중립적으로 말하려면 학생이기 때문이라고 해야 합니다.

-아서와 마찬가지로 뒤에 요청이나 제안이 올 수 없습니다. 그 역할은 -(으)니까.

■ 예문

- 1 비가 왔기 때문에 행사가 취소됐어요.
- 2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.
- 3 학생이기 때문에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.
- 4 교통사고 때문에 길이 막혔어요.
- 5 한국어를 배우고 싶었기 때문에 한국에 왔어요.
- 6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중요합니다.

■ 비교

-아서/어서
명령에 대한 제약은 같지만 무게가 다릅니다. -아서는 일상적인 표현이고, -기 때문에는 격식 있는 표현이며 -아서와 달리 시제를 붙일 수 있습니다.
비가 와서 못 갔어요. (구어) / 비가 왔기 때문에 가지 못했습니다. (문어)

-(으)니까
뒤 절이 누군가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는 내용이면 -아서도 -기 때문에도 쓸 수 없습니다. 명령과 청유를 받을 수 있는 것은 -(으)니까뿐입니다.
비가 오기 때문에 우산을 가져가세요. (틀림) / 비가 오니까 우산을 가져가세요. (맞음)

명사 + 때문에
명사에 바로 붙이면 탓하는 의미가 되기 쉽습니다. 무엇인지를 중립적인 사실로 말하려면 이기를 살려 두세요.
동생 때문에 늦었어요. (동생 탓에 늦음) / 동생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. (동생이라서 잘 알)

■ 주의

- ✗ 비가 오기 때문에 우산을 가져가세요.
○ 비가 오니까 우산을 가져가세요.
이 어미 뒤에는 요청이나 제안이 올 수 없습니다. -아서/어서와 같은 제약입니다.
- ✗ 학생 때문에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. — ‘학생이라서’라는 뜻으로 쓴 경우
○ 학생이기 때문에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.
명사 + 때문에는 ‘그 사람이나 그것 탓에’라는 뜻으로, 부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. 누가 무엇인지를 말하려면 이기 때문에를 쓰세요.
- ✗ 친구를 만났어서 늦었어요.
○ 친구를 만났기 때문에 늦었어요.
-아서에는 시제를 붙일 수 없지만 -기 때문에는 붙일 수 있습니다. 이유에 과거를 표시해야 한다면 이 표현을 쓰세요.